사랑한다는 마음에도, 배움이 필요합니다.

정현태 작가의『우리는 사랑을 모른다』



작가 소개

정현태

삶과 사랑에 관한 사유를 글로 풀어내는 작가입니다.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 사는 사람과 만나 사랑하고 결혼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랑을 안다는 우리의 믿음에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사랑을 모른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사랑의 의미를 다시 묻는 에세이

정현태 지음 | 좋은땅
2026. 05. 14. 출간 · 280쪽

책에 담긴 이야기

1부는 언어와 거리를 넘어 사랑하고 결혼해 가족이 되는 과정을 담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2부는 사랑을 가로막는 것과 우리 안의 자기중심성을 살피며, 더 건강하고 성숙하게 사랑하는 방향을 묻습니다.

존재의 숲이 소개하는 이유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고 상대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아이 사이에서도 내 바람을 사랑이라 믿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재의 숲은 이 책을 통해 사랑하는 방식까지 배우고 성찰하는 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백미나의 시선

“사랑한다는 내 마음보다, 사랑받는 네 마음을 살피는 일.”

내가 주고 싶은 사랑과 상대에게 필요한 사랑 사이를 들여다봅니다.

어른의 시선이 자라면 아이의 세계가 자란다.

자료: 좋은땅 출판사 도서·저자 소개 및 목차 | 소개·추천 글: 백미나

책 만나보기